

한국도서관협회 제49차 정기총회

개 회 사

한국도서관협회장 사공 철



〈司空철 회장〉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계절에 우리협회 마흔아홉번째 정기총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회원 여러분을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국정수행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도서관인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장소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 정기영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관문화 창달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적 봉사를 해 오신 공로로 오늘 한국도서관상을 받으시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땅에 근대적 도서관이 도입된 이후 선구적인 선배 사서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창립된 우리 협회는 한국의 도서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온 지 어언 반백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맞아 이렇게 여러 회원 동지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니 그간 우리들이 겪어 온 숱한 고난의 세월과 함께 좌절과 성공, 정체와 발전으로 점철된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나라가 해방된 후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이야말로 새로운 국가건설의 중요한 기반시설임을 확신하고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는 한편, 정부나 사회 모두가 또한 이를 인식하고 충실한 도서관 만들기에 적극 나서 주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미흡하나마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우리협회가 이러한 도서관계의 노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지원으로 잘 극복해 올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나라는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상황은, 도서관의 장서 구입 능력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고, 급기야는 출판산업까지도 미증유의 어려움에 봉착케 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출판문화는 한 나라의 지식체계와 정신문화를 지탱하는 두 개의 버팀목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출판산업에 관한 한 가장 안정적이며 영속적인 소비자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출판계의 이 같은 어려움은 민족문화와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걱정케 하는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출판산업을 위한 긴급 정책자금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 편, 국고로 지원되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비도 증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난국 극복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해당 분야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분발과 노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본인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은 협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빈약한 협회의 재정규모를 확충해 가는 일, 시장성이 거의 없는 문헌정보학 전문서적의 출판보급을 활성화하는 일, 현안이던 “한국십진분류법”을 개정하고 “도서관인윤리선언”을 제정·선포하는 일, 도서관의 인력구조를 전문화하기 위한 법령의 준수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도서관인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일 등에 힘을 기울였으며 다소간의 성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통해 우리협회는 더욱 큰 자신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깨닫게 된 것이 보다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사회의 정보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그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도서관 문화의 창출을 위하여 우리는 무거운 짐을 졌으며, 따라서 협회 활동의 중요성과 그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공동목표인 ‘국민에 대한 양질의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오늘 이 총회가 그러한 우리들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신낙균 장관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3월 27일

제34회 전국도서관주간 포어(4.12~4.18)

도서관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